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미 희¹⁾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최 가 희^{2)†}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의 매개를 통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 307명이 양육부담감 척도, 장애수용 척도,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를 포함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26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대처는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극적 대처는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 증진을 위한 치료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발달장애인 부모, 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 적극적 대처양식, 소극적 대처양식

* 본 연구는 김미희(2022)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최가희,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580-5381, E-mail : choigh@kmu.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매우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법제처, 2015).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 인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217,108명, 자폐성 장애인은 30,802명으로 10년 전보다 64,57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2020). 발달장애는 전형적으로 발달 초기에 발현되어 개인적·사회적·학업적·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야기하며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2013). 이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즉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지원, 상담 및 휴식지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5). 그러나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76.8% 중 90.3%가 필요한 도움을 가족에게 제공받고 있었고, 활동보조인 등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외, 202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이러한 현실은 발달장애인 자신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어려움 또한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고(김서은, 어주경, 2015), 비

장애인 부모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조인수, 김미자, 2001; Beckman, 1991; Dyson, 1993), 발달장애인 자녀의 인지능력 결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장애인의 부모에 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희정, 강연욱, 이훈진, 2004; 전병주, 2016; 최해경, 2010; Singer, 2006). 이렇듯 발달장애인 부모가 경험하는 과도하고 만성적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질환(김호진 등, 2021)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김성천, 김솔아, 2015)과 가족 삶의 질(황경열, 고일영, 용홍출, 2010)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녀의 장애와 같은 통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원이 존재할 때 이를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다(Kandel & Merrick, 2007). 장애수용은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이지선, 노정숙, 이경숙, 2013; 한미란, 2013; Huber, 1979).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수용은 부모와 장애자녀 모두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되며(주현숙, 2000; Heiman, 2002; Taanila, Syrjälä, Kokkonen, & Järvelin, 2002),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고통의 완화(Heiman, 2002; Jones, Hastings, Totsika, Keane, & Rhule, 2014; Lloyd & Hastings, 2008; MacDonald, Hastings, & Fitzsimons, 2010), 감소된 양육스트레스 및 향상된 삶의 질(강선경, 2002; 고일영, 황경열, 2010; 김서은, 어주경, 2015; 배연숙, 2012; 안수영, 2015; Heiman, 2002; Lloyd & Hastings, 2008; Piazza, Floyd,

Mailick, & Greenberg, 2014)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수용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 증진 및 장애수용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박정은, 2021).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척도사용에 있어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수용 행동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혹은 수용-거부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등 일반적인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장애수용 정도를 살펴보거나(Aydin & Yamaç, 2014; Gusrianti, Winarni, & Faradz, 2018; MacDonald et al., 2010; Zembat & Yıldız, 2010), 심리적 수용을 핵심 변인으로 하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Chua & Shorey, 2021; Gould, Tarbox, & Coyne, 2018). 국내에서는 고일영(2009)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장애수용 척도를 개발한 이후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고관우와 남진열(2016)에 의하면 2016년까지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여섯 편에 불과했고, 2016년 이후 최근까지도 열 편 내외(강지순, 황지원, 김정애, 2019; 구본용, 2018; 나동석, 2018; 문중혁, 2019; 박미하, 2018; 박미하, 양지원, 2019; 정성직, 한광령, 2017; 정은하, 한수정, 2017; 최종숙, 배희분, 2021)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두 편(강지순 외, 2019; 최종숙, 배희분, 2021)에 불과한 것이 현실로, 장애수용에 대해 보다 활

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수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두 변인 간 부적관계를 밝히고 있다(고일영, 황경렬, 2010; 송현중, 김소영, 2015; 최하경, 2014; Kim, Hwang, & Park, 2018; Lloyd & Hastings, 2008; MacDonald et al., 2010; Mak, Ho, & Law, 2007; Norizan & Shamsuddin, 2010). 반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 중 무엇이 선행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장애수용을 예측한다고 밝히는 결과(김보애, 2015; 조현경, 2002; 황경렬 외, 2010)와 장애수용과 유사한 개념인 장애인식, 심리적 수용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고일영, 김철, 황경렬, 권영욱, 2007; MacDonald et al., 2010)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고일영과 동료들(2007)은 장애인식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향후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사용하여 도달하게 되는 역량이므로 장애수용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고관우, 남진열, 2016; Luong, Yoder, & Canham, 2009)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심리적 자원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선행연구는 적극적 대처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적극적 대처양식은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 집중되는 문제

중심 대처와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포함한다(김정희, 1987). 대처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적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고(라연희, 2020; 양복만, 1998), 장애인 부모가 사회적 지원 및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적극적 대처전략을 높게 사용할수록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더 빨리 적응하고 수용함으로써 부모와 장애자녀 모두 긍정적 적응을 이룬다고 보고하였다(Kandel & Merrick, 2007; Taanila et al., 2002).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장애수용 수준 또한 높아지며 이는 긍정적 적응과 관련된다 는 것을 나타낸다. 적극적 대처는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수의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박혜진, 박경란, 2004; 이숙자, 오수성, 2006; 조인수, 이경아, 2009; Dardas, 2014).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가 유의미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양식 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소극적 대처양식은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고

통을 완화하는데 주된 노력이 투여되는 전략을 의미한다(김정희, 1987). 선행연구는 비장애 아동의 부모에 비해 지적장애아동의 부모에게서 더 높은 소극적 대처의 사용을 발견하였고(권영욱, 황경열, 2005; 조인수, 김환규, 2000),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양식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김미혜, 2007; 이원남, 김경신, 2017; 최하경, 2014).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일련의 선행연구는 소극적 대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원이나 상황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있다고 제시한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소극적 대처양식 사용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정유경, 2003). 더불어 대처양식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김정문(2010)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제 중심 반응 전에 정서 중심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김정희(1987)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는 서로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두 가지 대처양식의 촉진적인 관계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다. 전지예(2020)는 발달장애아동의 부모가 소극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 사용이 증가하여 높은 수준의 역경 후 성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통제 불가능하고, 개선되기 어려운 특성의 스트레스원을 경험하는 경우,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등의 소극적 대처양식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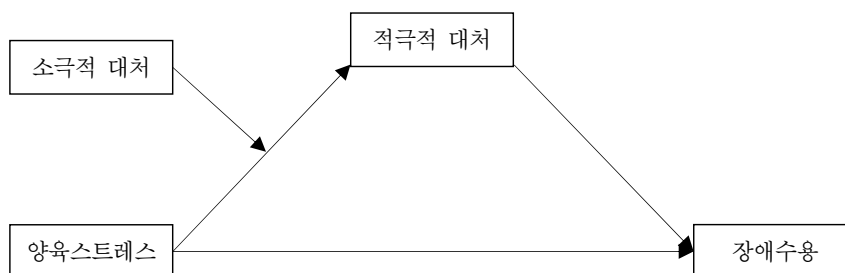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으며(Forsythe & Compas, 1987), 더불어 적극적 대처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양식을 통해서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 간의 관계가 소극적 대처에 의해 달라질 것인가?

연구문제 3.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40525-202105-HR-017). 발달장애인 부모 307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 263명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236명(89.7%), 남성 27명(10.3%)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44.73세($SD=6.28$)이었다.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76명(66.9%), 여자 87명(33.1%)이었고, 평균 연령은 12.91세($SD=6.76$)이었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Novek & Guest, 1989; Zarit, Reeve, & Bach-peterson, 1980)를 기초로 오가실(1997)이 만성질환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부모	성별	남성	27	10.3
		여성	236	89.7
	연령	만 40세 이하	76	28.9
		만 41~50세	135	51.3
		만 51세 이상	52	19.8
	혼인상태	결혼	245	93.3
		이혼	13	4.9
		기타	5	1.8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	16.7
		대졸	193	73.4
		대학원졸	26	9.9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0	34.2
		400~500만원	81	30.8
		600~700만원	61	23.2
		800만원 이상	31	11.8
	자녀	성별	남	176
여			87	33.1
연령		만 7세 이하	64	24.0
		만 8~13세	98	37.3
		만 14~19세	44	16.7
		만 20세 이상	57	21.7
장애유형		지적	124	47.1
		자폐성	131	49.8
		기타	8	3.0
장애심각도		1급	75	28.5
		2급	88	33.5
		3급	61	23.2
		4~6급	39	14.8
장애진단시기		만 5세 이하	199	75.7
		만 6~15세	61	23.2
		만 16세 이상	3	1.1

상으로 개발한 양육부담감척도를 남연희(2001)가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사용한 양육부담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부담감 척도는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의 4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 돌보는 일로 몸이 고달프다’ 등이 있으며,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남연희(2001)의 연구에서 양육부담감 척도의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는 전체 .94, 신체적 부담 .86, 정서적 부담 .75, 사회적 부담 .91, 경제적 부담 .85이었다.

장애수용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일영(2009)이 개발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애수용 척도는 Perske(1973)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심리적 태도변화 7단계를 기초로 이종남(1994)이 빈안한 장애요인척도를 참고하여 개발된 척도로 장애수용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일영, 2009). 장애수용 척도는 충격, 수치, 부인, 과잉보호, 수용, 죄책감, 반동형성, 의심의 8개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더 쉽게 좌절한다’ 가 있다. 응답자는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수용을 측정하는 3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고일영(2009)의 연구에서 장애수용 척도의 Cronbach's 는 전체 .89, 충격 .93, 수치 .85, 부인 .76, 과잉보호 .77, 수용 .74, 죄책감 .72, 반동형성 .64, 의심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

도의 Cronbach's 는 전체 .89, 충격 .91, 수치 .87, 부인 .87, 과잉보호 .66, 수용 .41, 죄책감 .62, 반동형성 .62, 의심 .69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발달장애인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수정·보완한 척도를 김정문(2010)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요인별로 6문항씩 선정하여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의 2개 변인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대처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2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예: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한다’). 응답자는 4점 Likert 척도(0=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평정한다.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대처양식 척도의 Cronbach's 는 .82-.95였으며, 김정문(2010)의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대처의 Cronbach's 는 각각 .78, .78, 정서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대처의 Cronbach's 는 각각 .62,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는 적극적 대처 .86, 소극적 대처 .79 이었다.

자료분석

먼저, SPS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분석이 적절한 분석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ersion 3.5 model 1을 사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후,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시한 매개모형, 조절모형, 그리고 조절된 매개모형의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대처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model 4를 사용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대처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을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소극적 대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의 분석 시 성별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수용($r=-.640, p<.01$), 적극적 대처($r=-.152,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소극적 대처($r=.146,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장애수용은 적극적 대처($r=.236, p<.01$)와는 유의한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1 양육스트레스	-			
2 장애수용	-.640**	-		
3 적극적 대처	-.152*	.236**	-	
4 소극적 대처	.146*	-.305**	.400**	-
평균	99.015	90.722	30.779	29.376
표준편차	18.981	14.656	5.963	5.478
왜도	-0.344	0.522	0.030	0.167
첨도	0.083	-0.274	-0.117	-0.284

* $p<.05$, ** $p<.01$.

정적 상관을, 소극적 대처($r=-.305,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극적 대처는 소극적 대처($r=.400,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정선호, 서동기(2016)의 제안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조절변인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0020, p=.7508$), 독립변인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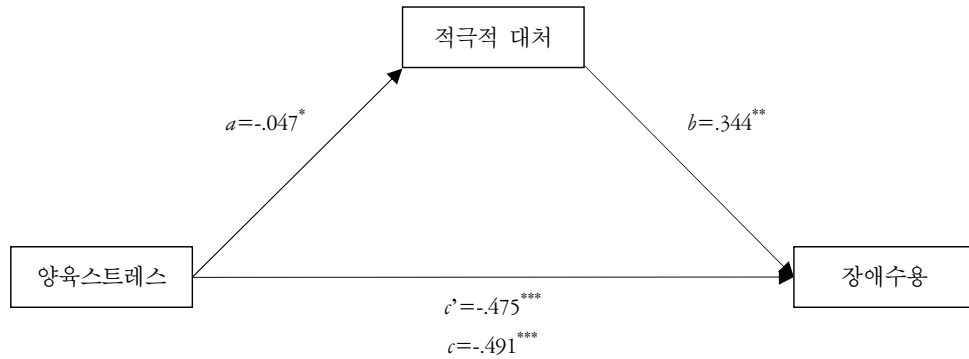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

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c=-.475, p<.001$). 둘째,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a=-.047, p<.05$). 셋째,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는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344, p<.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가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가 $-.491$ 에서 감소하였으므로($c'=-.475, p<.001$), 적극적 대처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고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

표 3.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예측변인	종속변인: 적극적 대처			종속변인: 장애수용				
	B	SE	t	B	SE	t		
양육스트레스	a	-.047	.019	-2.459*	c'	-.475	.036	-13.067***
적극적 대처	-	-	-	b	.344	.116	2.972**	
성별		.468	1.203	.389		4.718	2.245	2.102*
		R ² =.024			R ² =.439			
		F(2, 260)=3.14, p<.05			F(3, 259)=67.67, p<.001			
매개변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적극적 대처	-.016	.010	-.039	-.002				

* $p<.05$, ** $p<.01$, *** $p<.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수는 $-.016(a \times b = -.047 \times .344)$ 이었으며,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040$ 과 상한값 $-.002$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reacher & Hayes, 2004).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였다.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여 조절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주효과($B = -.600, p < .001$)와 소극적 대처의 주효과($B = .453, 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06, p < .05$).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소극적 대처의 수준을 평균값과 평균값에서 $\pm 1SD$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

표 4.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예측변인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양육스트레스(a)	-.600	.018	-3.336***	-.095	-.024
소극적 대처(b)	.453	.061	7.390***	.332	.573
상호작용항(a×b)	.006	.003	2.018*	.000	.013
성별	.695	1.081	.643	-1.424	2.823

* $p < .05$, *** $p < .001$.

표 5.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조절효과	SE	t	LLCI	ULCI	
소극적 대처	-1SD	-.095	.022	-4.267***	-.138	-.051
	Mean	-.060	.018	-3.358***	-.095	-.025
	+1SD	-.025	.027	-.928***	-.079	.02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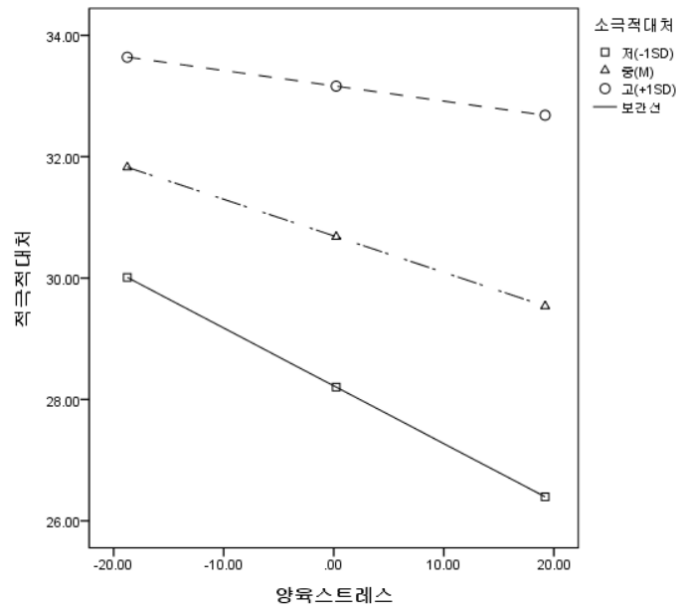


그림 3.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

과(정선호, 서동기, 2016), 상호작용 효과가 평균값 및 평균값 -1SD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값에서 +1SD 수준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의 사용이 감소하는데, 소극적 대처를 평균 및 낮은 수준으로 사용할 때 적극적 대처의 감소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성별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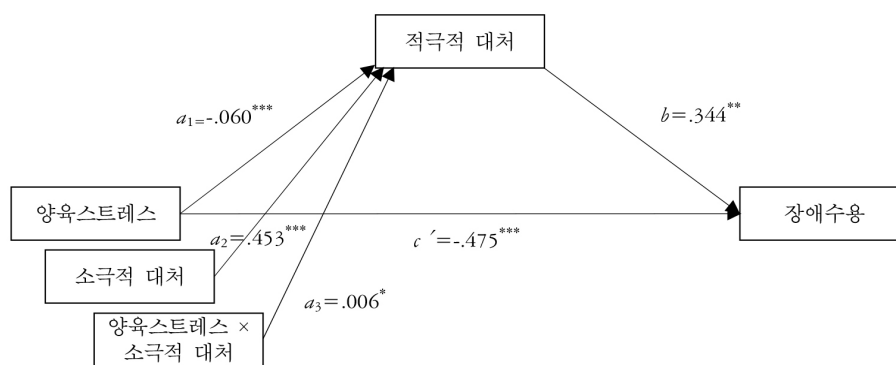
표 6. 양육스트레스, 적극적 대처,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결과변인 : 적극적 대처				
	<i>b</i>	<i>SE</i>	<i>t</i>	LLCI(<i>b</i>)	ULCI(<i>b</i>)
양육스트레스(a_1)	-.060	.018	-3.33***	-.095	-.024
소극적 대처(a_2)	.453	.061	7.390***	.332	.573
상호작용항(a_3)	.006	.003	2.018*	.000	.013
성별	.695	1.081	.643	-1.434	2.823
변인	결과변인 : 장애수용				
	<i>b</i>	<i>SE</i>	<i>t</i>	LLCI(<i>b</i>)	ULCI(<i>b</i>)
양육스트레스(c')	-.475	.036	-13.067***	-.547	-.404
적극적 대처(<i>b</i>)	.344	.116	2.972**	.116	.572
성별	4.718	2.245	2.102*	.298	9.138
소극적 대처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				
	간접효과	Boot <i>SE</i>	Boot LLCI	Boot ULCI	
-1SD	-.033	.013	-.060	-.008	
<i>Mean</i>	-.021	.010	-.043	-.004	
+1SD	-.009	.010	-.033	.007	

주. Boot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양육스트레스, 적극적 대처,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은 적극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006, t=2.018, p<.05$), 적극적 대처는 장애수용에 유의하게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344, t=2.972, p<.01$).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적극적 대처 수준이 감소하고, 이는 장애수용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관계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극적 대처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고 소극적 대처의 평균값 및 평균값±1SD 수준으로 나누어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값과 평균값 - 1SD 수준에서 신뢰구간(CI)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대처의 값이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는 -.033, 평균은 -.021으로 소극적 대처의 값이 낮을수록 조절된 매개효과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림 4와 같은 조절된 매개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각 경로의 b 값이 제시되었고,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_1),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_2),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이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_3), 그리고 적극적 대처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b),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c')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만($a_1=-.060, p<.001$),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은 적극적 대처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_3=.006, p<.05$).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적극적 대처를 덜 사용하게 되고, 이는 낮은 수준의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관계가 소극적 대처의 사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장애수용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적극적 대처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의 적극적 대처 사용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 양식의 사용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숙자, 오수성,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대처양식이 삶의 질과 만족도(강선경, 2002; 양지연, 배희분, 2020; 이원남, 김경신, 2017),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김미희, 손정락, 2006), 역경후 성장(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전지예, 202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게 되어 장애수용에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감소하여 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양식을 덜 사용하게 되지만 소극적 대처의 사용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sythe와 Compas(1987)는 통제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적장애아동의 부모가 정서적 진정, 소극적 철수 등의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부모의 신체적 증상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박혜진, 박경란, 2014; 조인수, 김환규, 2000), 발달장애인 부모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이원남, 김경신, 2017). 소극적 대처는 적극적 대처에 비해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김교연, 2007; 김정희, 1995; 이정숙, 2012; Kling, Seltzer, & Ryff, 1997; 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Lazarus(1981: 김정희, 1987에서 재인용)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가 잘 조절되면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다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로 이어진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소극적 대처의 사용은 적극적 대처를 원활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의 수준이 낮거나 평균일 때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소극적 대처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의 부정적인 매개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적극적 대처를 덜 사용하더라도 소극적 대처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난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나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보유한 정보의 종류 및 치료 프로그램 이용여부 등 외부환경과 관련된 변인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심리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식의 역할을 파

악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 또한 적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처방식은 장애수용에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소극적 대처 또한 필요하다(진지예, 2020). 이는 발달장애의 특성상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적극적 대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실망감 내지 절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교연, 2007).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우울이나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적극적 대처를 시도하기 이전에도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부모는 무력감을 경험하며 문제해결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조인수, 이경아, 2009). 이렇듯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강도 높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완화적 혹은 소망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의 사용은 부정적 정서를 환기시키고, 스트레스로 압도되어 사용하기 어려웠던 내적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소극적 대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김정희, 1987), 발달장애인 부모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소극적 대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적극적 대처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두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거나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쳤다(김미희, 손정락, 2006; 박혜진, 박경란, 2004; 신고은, 박주희, 2015; 이숙자, 오수성, 2006; 이원남, 김경신,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소극적 대처의 부적응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적극적 대처의 적응적인 면을 강조하여, 소극적 대처를 감소시키고 적극적 대처를 증가시키는 개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적극적 대처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고통받을 때, 상담자가 성급하게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기보다는, 부모가 적절하게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내적 에너지가 충전되어 양육상황에서 필요한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머니로 편중되었다. 이러한 표본의 제한성으로 인해 아버지의 경험을 잘 반영하였다 보기 어렵다. 추후 연구는 아버지의 경험뿐 아니라 부모 한 쌍의 상호역동을 반영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 혹은 왜곡된 보고가 결과에 반영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질적연구나 실험연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부모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횡단연구이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은 자녀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동안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것이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은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로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적극적 대처양식 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 또한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수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장애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심리내적 기제를 발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장선경 (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0(14), 7-35.

강지순, 황지원, 김정애 (2019). 신체기능장애와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웰니스. 한국유화학회지, 36(4), 1385-1398.

고관우, 남진열 (2016).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0(51), 368-402.

고일영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일영, 김철, 황경열, 권영욱 (2007).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인식과 장애아동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0(1), 27-36.

고일영, 황경열 (2010).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재활심리연구, 17(1), 57-80.

구분용 (2018).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 의사소통 및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6), 397-422.

권영욱, 황경열 (2005). 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 비교. 동서정신과학, 8(1), 45-59.

김교연 (2007). 성인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전략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91-115.

김미하, 손정락 (2006).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

- 구, 14(1), 9-16.
- 김미혜 (2007).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5(1), 1-20.
- 김보애 (2015).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행동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은, 어주경 (2015).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정도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19-35.
- 김성천, 김솔아 (2015).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발달장애 자녀의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52), 279-308.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87-806.
- 김호진, 임예직, 박혜원, 조신영, 장수빈, 전영환, 김언아, 최종철, 이정주 (2021).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나동석 (2018). 자기연민의 적용과 효과: 장애아동 부모의 자기연민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불교문예연구, 0(10), 75-107.
- 남연희 (2001).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라연희 (2020). 발달장애자녀 양육자가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중혁 (2019). 장애 아동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와 경제적 안정감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6), 421-429.
- 박미하 (2018). 장애자녀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5(2), 225-242.
- 박미하, 양지원 (2019). 장애자녀 어머니의 애착회피와 장애수용과의 관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0(6), 167-178.
- 박정은 (2021).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581-606.
- 박혜진, 박경란 (2004).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생활만족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25-636.
- 배연숙 (2012).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20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

- 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1, 12, 01 인출.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_005&conn_path=I2에서 2021, 12, 01 인출.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_005&conn_path=I2에서 2021, 12, 01 인출.
- 송현중, 김소영 (2015).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장애수용의 조절 효과. 특수교육연구, 22(2), 94-115.
- 신고은, 박주희 (2015).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5), 189-208.
- 안수영 (201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장애수용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219-238.
- 양복만 (1998). 精神遲滯兒 어머니의 心理的 態度變化와 스트레스 對處行動 研究. 濟州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양지연, 배희분 (2020). 난임 여성의 난임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가족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81-103.
- 오가실 (1997). 사회적 지지모임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7(2), 389-400.
- 유희정, 강연욱, 이훈진 (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 이숙자, 오수성 (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 연구, 7(1), 27-45.
- 이원남, 김경신 (2017). 발달장애 성인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족탄력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27-50.
- 이정숙 (2012). 대학생의 대인 관계가 인터넷 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2), 115-134.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노정숙, 이경숙 (2013).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6(2), 47-71.
- 전병주 (2016).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복지서비스 인식 및 삶의 질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492-502.
- 전지예 (2020).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성직, 한광령 (2017). 중도장애에 대한 초등학교 야구선수 및 부모의 장애인식이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175-187.
- 정유경 (2003). 장애자녀 어머니와 일반자녀 어

- 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하, 한수정 (2017). 뇌병변아 어머니의 희망과 장애수용이 가족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543-553.
- 조인수, 김미자 (2001). 정신지체아와 일반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의 수준. *재활심리연구*, 8(2) 155-171.
- 조인수, 김환규 (2000).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발달장애연구*, 4(1), 73-87.
- 조인수, 이경아 (2009). 지적장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1(2), 113-137.
- 조현경 (2002). 발달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체험과 사회적 지지의 수용 및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숙 (2000). 장애아동 가족의 장애 수용과정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36(1) 149-162.
- 최종숙, 배희분 (2021).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장애수용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9(1), 89-112.
- 최하경 (2014). 장애자녀 양육자의 장애수용,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경 (2010).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보호부담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243-263.
- 한미란 (2013). 지체장애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애수용에 대한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경열, 고일영, 용홍출 (2010). 장애아동 어머니의 개인특성, 장애수용 태도, 양육 스트레스가 장애아동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3(2), 1-2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권준수 외 11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Aydin, A., & Yamaç, A. (2014). The relations between the acceptance and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mental disabilities.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 79-98.
- Beckman, P. J. (1991).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5(5), 585-595.
- Chua, J. Y. X., & Shorey, S. (2021). The effect of mindfulness-based and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base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mental well-being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Advance online publication.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rdas, L. A. (2014).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Jordanian parents of

- children with autistic disorder. *Autism*, 4(127), 2-7.
- Dyson, J. M. (1993). Response to the presence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Parental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8(2), 207-218.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rsythe, C. J., & Compas, B. E. (1987). Interaction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Testing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4), 473-485.
- Gould, E. R., Tarbox, J., & Coyne, L. (2018). Evaluating the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raining on the overt behavior of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7, 81-88.
- Gusrianti, E., Winarni, T. I., & Faradz, S. M. (2018). Factors affecting parents' acceptance towards children with familial intellectual disability (ID). *Journal of Biomedicine and Translational Research*, 4(2), 45-50.
- Heiman, T. (2002).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ilience, coping, and future expecta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4(2), 159-171.
- Huber, C. (1979). Parents of the handicapped child: Facilitating acceptance through group counseling.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7(5), 267-269.
- Jones, L., Hastings, R. P., Totsika, V., Keane, L., & Rhule, N. (2014). Child behavior problems and parental well-be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utism: The mediating role of mindfulness and acceptance.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9(2), 171-185.
- Kandel, I., & Merrick, J. (2007). The child with a disability: Parental acceptance, management and coping.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7, 1799-1809.
- Kim, E., Hwang, J., & Park, S. (201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hwa-byung among Korea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65(1), 76-89.
- Kling, K. C., Seltzer, M. M., & Ryff, C. D. (1997). Distinctive late-life challenges: Implications for coping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2), 288-295.
- Lazar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en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New York, NY: S.P. Medical & Scientific Books.
- Lloyd, T., & Hastings, R. P. (2008). Psychological variables as correlates of adjustmen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1), 37-48.
- Luong, J., Yoder, M. K., & Canham, D. (2009). Southeast Asian parents raising a child with autism: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coping style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5(3),

- 222-229.
- MacDonald, E. E., Hastings, R. P., & Fitzsimons, E. (2010). Psychological acceptance mediates the impact of the behaviour problem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father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3(1), 27-37.
- Mak, W. W., Ho, A. H., & Law, R. W. (2007). Sense of coherence, parenting attitudes and stress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in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0(2), 157-167.
- Montgomery, R. J., Gonyea, J. G., & Hooyman, N. R.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4(1), 19-26.
- Norizan, A., & Shamsuddin, K. (2010).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Malaysian mother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11), 992-1003.
- Novek, M. T., & Guest, C. (1989).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6), 798-803.
- Perske, R. (1973). *New directions for parents of persons who are retarde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for Cooperative Publication Association.
- Piazza, V. E., Floyd, F. J., Mailick, M. R., & Greenberg, J. S. (2014). Coping and psychological health of aging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9(2), 186-19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eltzer, M. M., Greenberg, J. S., & Krauss, M. W. (1995). A comparison of coping strategies of aging mothers of adults with mental illness or mental retardation. *Psychology and Aging*, 10(1), 64-75.
- Singer, G. H. (2006). Meta-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of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1(3), 155-169.
- Taanila, A., Syrjäälä, L., Kokkonen, J., & Järvelin, M. R. (2002). Coping of parents with physically and/or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8(1), 73-86.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B.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 Zembar, R., & Yıldız, D. (2010). A comparison of acceptance and hopelessness levels of disabled preschool children's mothe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1457-1461.

원 고 접 수 일 : 2022. 03.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5. 15
게재결정일 : 2022. 05. 24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on Disability Acceptance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Strategies

Mihee Kim

Keimyu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active coping and disability acceptance. 307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that included the Parenting Stress Scale, Disability Acceptance Scale, and Stress Coping Scale. After eliminating inattentive responses, data from 263 par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First, active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ability acceptance. Second, passive cop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active coping. Third, passive coping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e coping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ability accepta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ctive coping in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disability acceptanc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suggested that it has a beneficial impact on facilitating parents' acceptance of their children's disability.

Key words :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Acceptance, Active Coping Strategies, Passive Coping Strategies